

To.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 장에 다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고창에 가서 멘토님을

보았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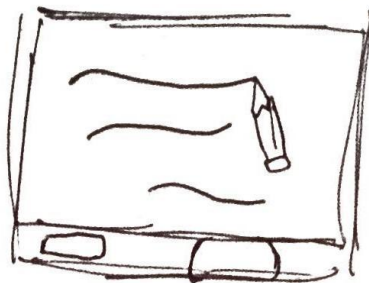
많은 장들 앞에서 말하니 좀 떨리긴  
하지만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말씀 해주셔서

간장이 좀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

멘토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멘토님께서는 어려울 때 부터 서당생활  
을 하시니 정말 대단하신것 같아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2017년 10월 2일  
From. 지영

2017년 10월 2일 (월)

멘토님께 ✉

안녕하세요?

저 장 멤버

멘 처음에 들어갈 때 이 혼장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서당처럼 인성과  
느낀지 않았어요

여절의

그런데 왜인지 사자소학을  
읽고 오라는 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서 막상

알어 단 사자소학의 대해 말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

감 잡았어요

그 이유는 사자소학의 대한 얘기는 막상 안 말하니까  
다행스러워 서요. (책들 자세히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7년 10월 12일 (월)

김가현



2017년 1월 2일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장의 박상욱입니다. 이번 여행에 서당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훈장님께서 여행을 ~~해 주신~~ 서당에서 공부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셨지만 그 힘을 ~~전혀~~내고 훈장님이 된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고~~ 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까지~~

예외와 ~~이유~~ 방법 두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욱 올림



멘토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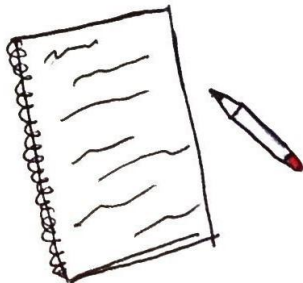
멘토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엔 멘토님을 뵙고 은 하세린이라고 해요, 멘토님이 제 질문에 답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최선을 다해 질문을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니다. 멘토님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달했어요. 😊 앞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저처럼 많은 것들을 배달해

주세요 :D 안녕히 계세요.



2017년 10월 2일  
하세린 올림

ㅋㅋㅋㅋ



오아아 -



2017년 10월 2일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매달 마다 여행을 가서

멘토님을 본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본 멘토님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6살 때부터 혼자 부모님을 떠났다는 말에 놀라웠습니다.

6살이라면 계속 부모님 정을 받고 있을 나인데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던게 느껴집니다

그런 멘토님을 저도 본받고아서 끈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르침도 받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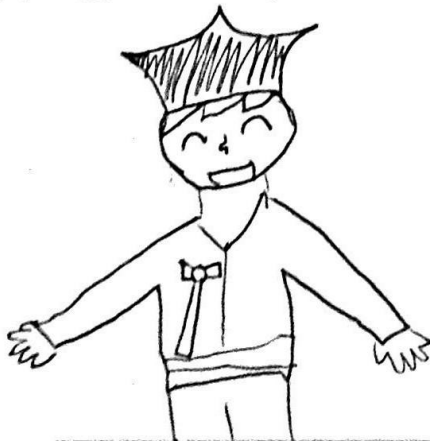
2017년 10월 2일 (월)

TO. 기범수멘토님께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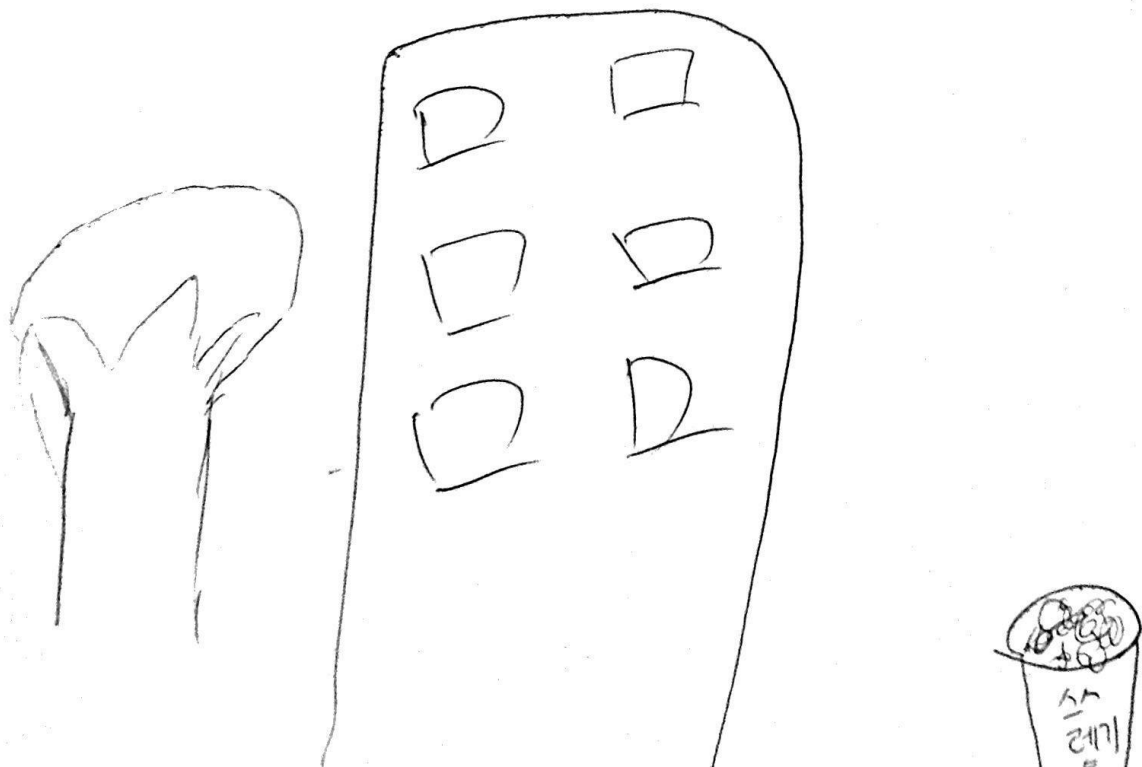
저는 이번 세상을 가꾸는 짱에서 고창으로  
여행을 온 김진호 입니다. <sup>무안</sup>짱에서 두 명  
이 못와서 아쉬웠습니다. 멘토님께서 8월 멘토  
님과 똑같이 훈장님이어서 지루할 줄 알았는  
데 새로운 사자소학에 대해 알아서 좋았습  
니다. 그리고 이번 멘토님, 기범수 훈장님이 존경  
스러웠습니다. 8살 때부터 부모님없이 혼자 살아온  
것이 놀라웠습니다. 슬프고 힘들게 8살 때부터 어려  
운 것을 참고 혼자 꺾어 온 것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의 질문  
을 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김진호 올림 -



# 고창주민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짱 여행을 못한 송호진 입니다. 못한 이유는 가족사건을  
찍으러 광주를 가쳐 못갔습니다. 고창주민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못보게 되서 너무 아쉽습니다. 전에 벌교수민들  
처럼 친절하고 그런신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사정이있어  
못가니 서운했습니다. 고창에 유명한 것도 알고  
좋은 점도 알고 싶었는데 못알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행 하면서 한번더 뵙고 싶습니다.  
고창에 못가서 죄송합니다. 깨끗한 고창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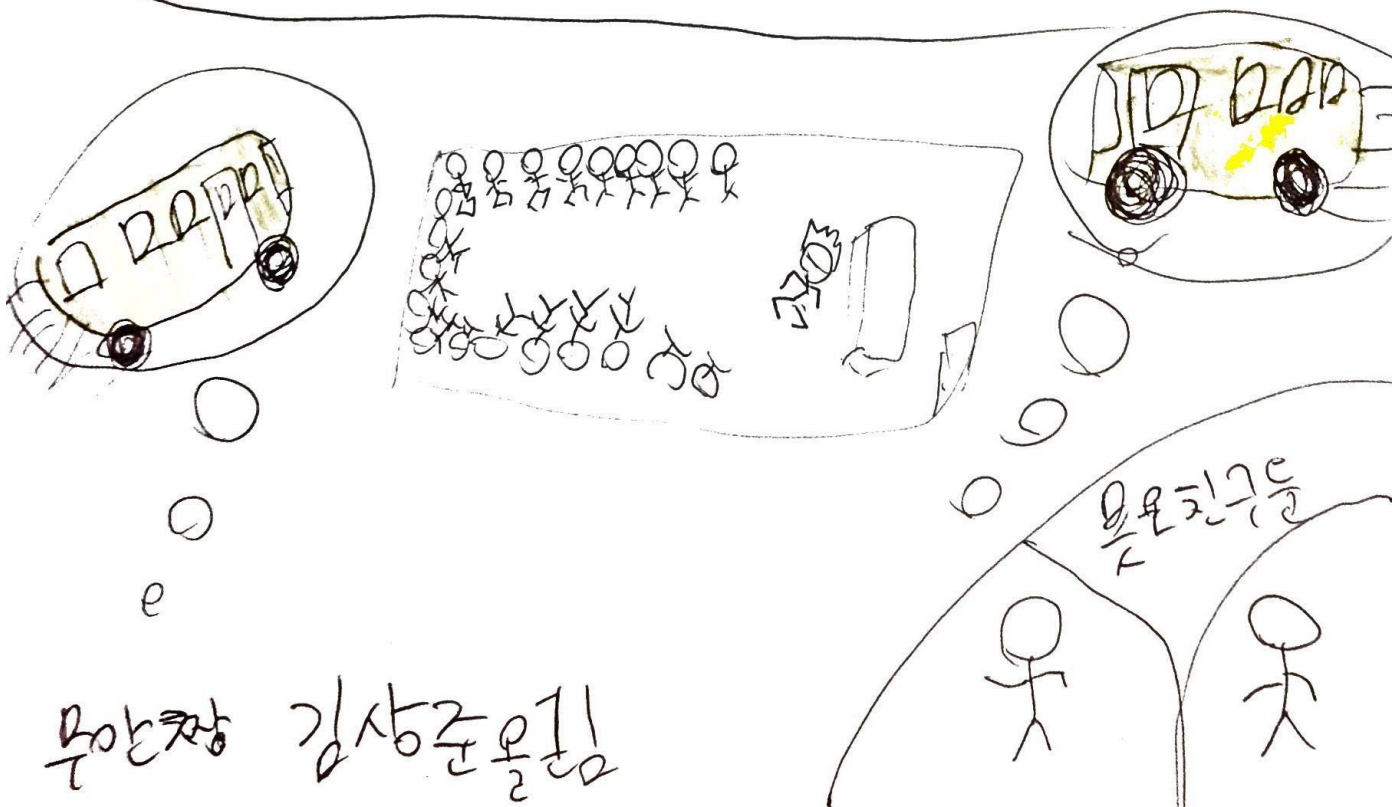
2019년 10월 2일

멘토님께

저는 이번 9월 30일 짜장 여행에서 고창을 가서 혼자 방문  
뒤에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서당이라서 분위기가 암하기만  
하고 무서웠음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번 짜장 여행은 두 친구가 못가서  
많이 아쉬웠어요

멘토님과 함께 여행할 때는 조금 더 애써주세요  
그리고 서당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입니다 이번 짜장 여행에 못간 짜장  
두 친구가 바빠서 저는 다음부터 짜장 여행갈 때는 양친구들  
여기에 먼저 그날 일정을 잡아두고 꼭 짜장 여행에 오셔서 멘토님께  
자랑 받을 바쁘고 더 가까이 지낼 예정입니다.





기행수고인투님께

메투님 안녕하세요  
이따금 지를 쓰는 지금 은 만나-볼지 걱정 짝지나서구요  
큰 맘이 드시 나우죠 메투님게선 요즘 어떻게 보네서는지요  
거꾸로 경우에는 여기러기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 끌려다니는 건 전 전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일종의 표현입니다  
참음 메투님을 상상하여서. 2면의 김대중 현상님과 비슷한 분이실거라  
상상 하 셧 습니다 하 지 만 만나 뵈 을 먼 다 드 러 겠 요

생각 보다 활기찬 성격에 편한 그 돈든 하리는 목소리에 부드러운 말씨가  
생각 드러운 단어 선정 까지 처음 뵈순가제 앞에 보이는 우블랭이란 액체  
보이 습 니 다 우블랭 이란 것은 액체 지 만 가 향 은 그 을 스며 들 이  
그 경도 부드럽게 걸 문 베 대 상 하 세 는 메투님 으 로 시 는 것 이 가 되 시 요  
액체 가 되 라고 제 가 단 상 하 는 것 이 는 보 이 셧 습 니 다  
그 맛 을 보 고 어 목 흥 흥 해 지 어 주 요  
말이 강 어 저 려 는 합 니 다 이 정 유 에 서  
편 지 네 용 로 끌 네 제 요  
메 투 님 게 선 하 리 길 밭 니 화

10-9 ~~김대중~~ 김태현 올림  
5대

14번째 희망공정 여행  
고창 덕화강학당

'기범수' 훈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짱 조다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희망공정 여행에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도 짱 공석 밴드를 통해서 짱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저는 훈장이 하신 말씀 중 '학문이라는 것 배운 것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릴 목표로 한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평소에 앞에서는 열심히 들 배우면서도 뒤에서는 정말 살리게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사자소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효도인데 할도 부임과 싸워버렸어요...

제 맘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워려 제가 효를 내버렸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 많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해야겠어요!!

앞으로도 사자소학과 훈장이 해주셨던 말씀 모두 잘 기억하고 정말 살리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9



♡ 범수훈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찾아보았던  
세상을가꾸는 짱뽕 임민지입니다.  
이번에 고창덕화강학당에 와서  
나의 삶을 나아가는 방법을 알수있어서  
너무 좋아어요. 그리고 멘토님을 만나고  
기쁨이라는 희망을 얻어가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教學相長



To.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가꾸는장 김소희라고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참석을 못하였는데 되게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후장님이라고 했는데 참석하면 도움이

많이되었을텐데,, 다음이 기회가되면 찾아가겠습니다!!

멘토님! 좋은 말씀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반드르확변했은데 되게 좋은신입니다!!

멘토님 전 여기서 편지를 작성합니다!!

안녕히계세요!!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세상을 가꾸는장 김소희입니다!!

기범수 선생님께

2017.10.10

안녕하세요 기범수 선생님 !!

저는 세상을 가꾸는 작심버입니다.

저번에 뵈어서 좋은 경험을 하시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원천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서당을 다니셔서 놀라워요 !!

저도 그런 생활을 한번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시간이 된다면 찾아뵙게요 ~~~

김진익은림

기병식 훈장님께

안녕하세요, 기병식훈장님

처음에 훈장님께서 사자소학을 읽어보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왜 사자소학을 읽어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당에 가서

왜 훈장님이 사자소학을 읽어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듣고

훈장님께서 저희의 질문에 대해 자신 내용을

들이 사자소학을 읽어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 동생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볼 만스러운 풍경을 하지

않고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어

모두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훈장님께서 어렵게 때 부터 서당을

다녔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성과 예절,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자소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어린이를 위한 취미적의 입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박리홍 올림



# 기쁨 4 훈장님께

훈장님 안녕하세요.

저랑 멤버 김형득입니다.

평일은 저희와의 만남은

가져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장 멤버들의 질문에

답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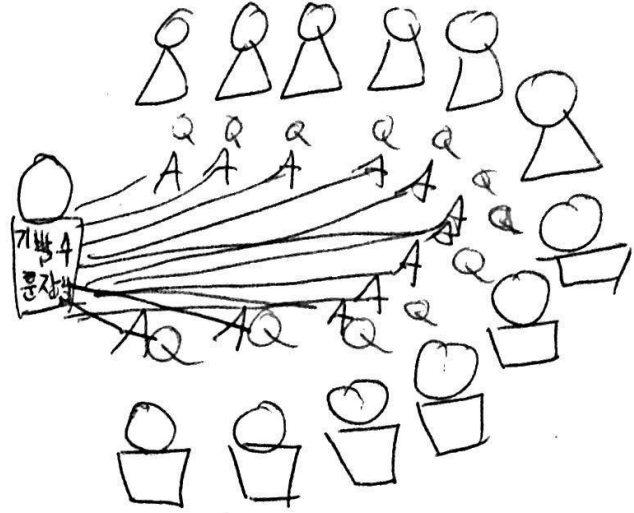
저는 그날 멘토님과의 만남이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가 이같이 되는 날 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2017/10/10/화

### 김형득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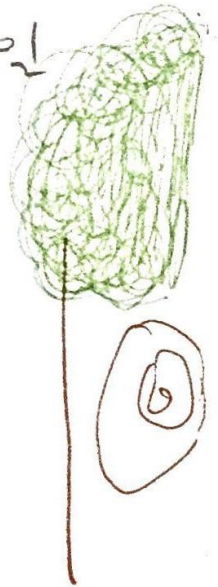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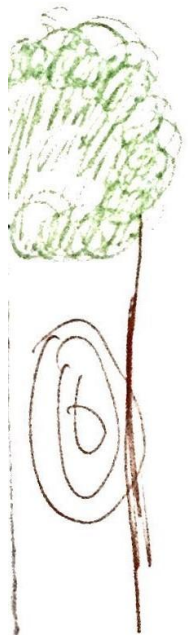
기쁜수 훈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함평에서사는 함평쌍쌍 김희영  
입니다 제가 서당을 가본적이 많지 않은데 가 볼기 리도업서  
서당을 가서 너무 좋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 오는데  
밭에나무들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공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서 조금 놀랐어요 먼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도  
같이 수업듣는것도 신기했고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  
나는것도 신기 했어요 저는 맨날 늦잠자서 해서잠에  
있어나버리거든요 저만 대단한게 아니다 생각  
했어요 그리고 '교학상장'이 사자성어를 알아서  
간건 참 잘한거 같아요 학교 한문시간에 이제  
나타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가 보고 싶어요!  
그럼안녕히계세요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김희영 올림

教學相長



2017. 10. 12

기쁨수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희망공장 여행에 다녀온 장지혜 라고 합니다.

기쁨수 멘토님 서당에 다녀와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님께 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재미있었기 때문 습니다. 멘토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것이 재미있으시다고 한게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 힘든것같은데, 행복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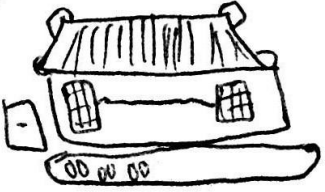
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멘토님처럼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멘토님을 만나게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2

장지혜 올림.





기범수 훈장님께

안녕하세요? 기범수 훈장님, 저는 저번에 왔던 광주짱 멤버 임은주라고 합니다.

저번에 다녀왔을때 1문1답 시간을 했을때 친절하시고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훈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좀 짧게 해주세요 하는데..." 라고 하셨을때 길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1문1답이라 가장 질문하고 싶었던걸 하려고 했는데 다이입을 놓치거나 다른 짱 멤버가 질문을

해버려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할 랑이 없었어요. 그러다

머리속에서 질문이 생각나서 질문을 했는데 한 다음에 조금 쪽팔렸어요...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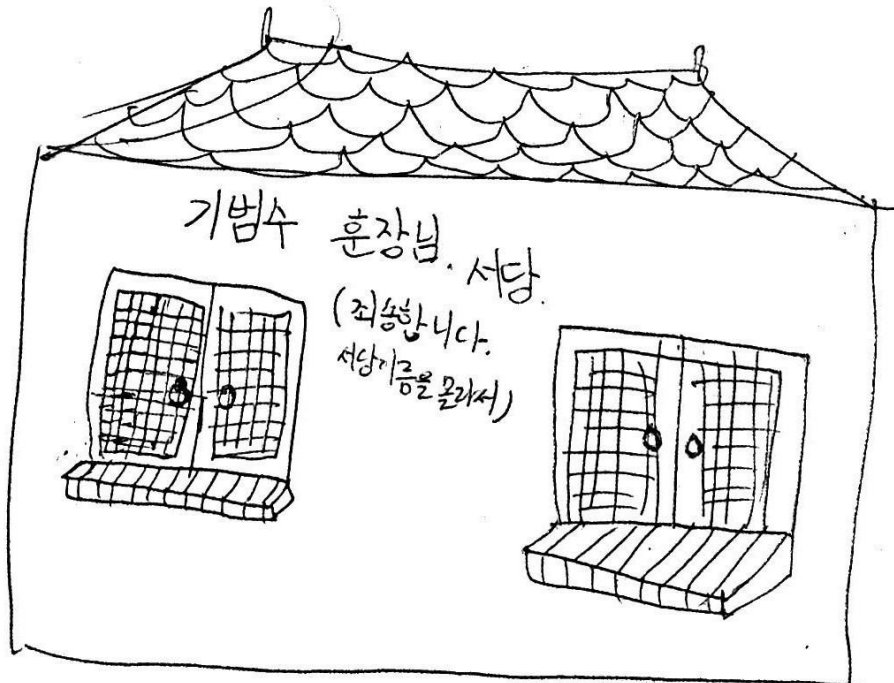
제가 한 질문이 "서당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뿐 훈장님께서

"서당을 선택 할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고향을 방문할때 서당을 방문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7년 10월 12일

- 광주짱 임은주 올림. ~



기범수 훈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김승관 이라고 합니다.

저는 훈장님이 어리셨을 때부터 서당에서 공부를 하셨다니

저도 한자글 훈장님처럼 잘하고 싶습니다.

훈장님이 한자글 쓰고 그리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훈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